

好실적에 평가순위 첫 3위권... 하반기엔 해외수주 '기대'

(시공능력 평가)

상반기 건설사 성적표

④ 대림산업

영업·정비사업 수주 등 국내 강제 해외수주 실적 없어 매출 감소 전망

'장사 잘 했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호실적을 내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한 계단 올랐다. 국내 정비사업 수주에서도 활약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러나 해외수주 실적은 현재까지도 '0(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적·시공순위·정비사업 '3박자'

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림산업의 올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5.0% 증가한 2450억원이다. 매출은 2조8331억원, 순이익 246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 65% 증가했다.

건설사업부 영업이익은 15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 급증했다. 매출액도 2조1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다. 주택부문의 실적 성장



서울 종로 대림산업 본사.

/대림산업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호조와 도급 증가 효과 등이 반영된 영향이다.

2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는 이어졌다. 대림산업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250억원, 당기순이익은 2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116% 늘어났다.

호실적은 국내 주택사업 실적이 견인

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가 국내 주택사업을 이끌어온 전문가인 만큼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비사업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인천 남구 도화1구역 재개발(3900억원)과 4월 부산 금정구 남산1구역 재건축(893억원)을 단독

로 따냈다. 5월엔 고려개발과 부산 영도구 대평1구역 재개발(1917억원) 시공권을 수주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1191억원) 시공권은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확보했다. 지난 6월엔 대구 서구 서대구지구 재개발(5732억원)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실적 1조원을 돌파, 지난해 전체 정비사업 수주액 7866억원 규모를 이미 상반기에 넘어섰다.

대외신인도도 높아졌다. 대림산업은 올해 처음으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업계 3위에 올라섰다.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의 종합평가다. 대림산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9조3720억원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림산업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5년부터 매년 한 계단씩 오르고 있다.

◆해외수주 실적 '0'

그러나 해외 사업에선 부진한 모습이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해외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러시

아 옴스크 정유공장, 쿠웨이트 머큐리 가스 베드 수정 작업 엔지니어링 용역 서비스 등 정유 관련 사업 2건을 수주했다. 플랜트나 토목 등 건설 부문에선 여전히 해외 수주 제로 상태인 셈이다.

아울러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공사(19억 달러) 계약을 지난 5월 말 해지하면서 수주잔고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당초 올해 해외 신규 수주 목표액을 1조원으로 낮춰 잡았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이마저도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수주잔고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 전망에 주가도 약세다.

대림산업의 주가는 올 1월 25일 8만9400원까지 올랐다가 3월엔 7만20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일엔 7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유안타 증권 김기룡 연구원은 "대림산업은 2017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 수주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이라며 "자연되고 있는 사우디 마덴 암모니아 1조원 외에는 연내 의미 있는 수주 가능한 해외 프로젝트가 부재한다. 해외수주 잔고 확보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한화건설이 지난 1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3대 이행수칙' 시행 점검을 완료했다. 사진은 보건관리자가 체온 및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모습. /한화건설

한화건설

혹서기 이행수칙 점검 완료

한화건설이 국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3대 이행수칙' 시행 점검을 완료했다. 2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의 혹서기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화건설은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포도당)이 제공되는지 확인했다. 또 제빙기 등을 설치해 얼음을 제공하고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차량 및 낙하물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그늘진 장소(근로자 휴게소)가 배치돼 있는지 점검했다. 햇볕 차단과 통풍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의자, 음수대 등의 휴게시설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 특보(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5분 이상 휴식을 전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장별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이벤트와 수시 체온측정 등 건설 근로자 건강관리활동을 적극 장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혹서기 안전보건관리 점검에서 '광고 컨벤션 꿈에그린', '인천 서창 꿈에그린' 건설현장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사적으로 사례를 공유했다. /채신화 기자

연내 강남3구 2594가구 일반분양... '로또 청약' 기대감↑

전년동기비 2.5배 많은 물량
세부담에 가수요·갭투자 급감

〈연내 강남3구 분양예정단지 현황〉

시기	위치	단지(사업명)	총가구	일반분양	전용면적 (㎡)	건설사
11월	서초구 반포동 32-8(삼호가든 3차)	삼호가든 3차 재건축	835	219	49~136	현대건설
10월	위례신도시 A1-6블록(송파권역)	위례신도시 A1-6블록	494	494	105~130	계룡건설
11월	강남구 개포동 189(개포주공4단지)	개포주공4	3,320	239	59~132	GS건설
11월	서초구 방배동 1028-1(경남아파트)	방배경남	759	269	미정	GS건설
11월	강남구 일원동 690-1(일원대우)	일원대우 재건축	184	63	59~121	현대건설
12월	송파구 거여동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	거여2-1	1,945	748	미정	롯데건설
12월	서초구 서초동 1335(무지개아파트)	서초무지개	1,481	215	43~119	GS건설
하반기	서초구 서초동 1336(서초우성1차)	래미안 리더스원	1,317	232	59~238	삼성물산
하반기	강남구 삼성동 19-1(상아2차)	상아2차(래미안)	679	115	59~149	삼성물산

*분양시기 및 가구수, 전용면적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자료=부동산인포

8월 이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분양이 상반기 청약열기를 이어갈 지 주목된다.

강남3구는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고 있는데다 분양가 규제가 이어져 '로또 분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 양도세 등 세부담이 가중돼 가수요, 갭투자가 급격히 사라지는 추세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이슈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114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나온 정부의 8·2대책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2017년 7월 말~2018년 7월 말)간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7.72%를 기록해 서울 평균(14.73%), 강남3구 제외(12.84%)보다

크게 웃돌았다. 올해 7월말까지 9.75%의 변동률을 기록해 역시 서울 평균(9%)과 강남3구를 제외(8.51%)한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존 아파트값 상승과 달리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규제도 분양가 인상폭이 제한되고 있다"며 "강남3구 분양아파트는 중도금대출 제한으로 자금력이 충

분한 수요자들이 청약할 수밖에 없고, '뽕뽕한 한 채'가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까지 서울 강남3구에서는 2594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작년 동기(1048가구) 대비 2.5배 많다. 안전진단 강화, 증고제한, 초과이익환수 시행 등의 규제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원활

하지 못할 경우 강남3구에서는 신규아파트 분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1317가구(일반 232가구)를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를 헐고 679가구(일반 115가구) 규모의 래미안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아파트를 헐고 835가구(일반 219가구),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아파트를 헐고 185가구(63가구)를 짓는다.

GS건설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 단지를 헐고 3320가구(일반 239가구), 서초구 방배동 방배경남아파트를 헐고 759가구(일반 269가구),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헐고 1481가구(일반 215가구)를 짓는다.

이외에 롯데건설은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 2-1구역을 재개발 해 1945가구(일반 748가구)를, 계룡건설은 위례신도시 A1-6블록에 494가구를 연내 공급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미래에셋-네이버, 그랩에 1억5000만 달러 투자

동남아 최대 모바일 플랫폼 진화 기대
기업-시장 가교역할... 진출 기회 노력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펀드는 1조원 규모의 펀드 결성 후 첫 투자로 동남아 승차공유시장 1위 업체인 그랩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규모는 1억 5000만 달러다.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인수하면서 동남아 승차공유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남아 8개국 5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우월한 교통서비스 사업자 지위와 동남아 최초 1억명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



바탕으로 식품, 배송, 모바일 결제, 금융 서비스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시아의 최대 O2O(Online to Offline)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가 기대된다. 올해 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이

예상되는 동남아 최대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다. 그랩의 주요 주주로는 소프트뱅크, 디디추싱 등이 있으며, 이번 투자에는 토요타, 오픈하이퍼펀드, 평안캐피탈 등 세계 유수의 투자자들이 함께한다.

미래에셋은 네이버와 지난 3월 50%씩 공동 출자해 2000억원 규모의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펀드를 처음 결성했으며, 7월 1조원으로 증액을 마무리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운용을 담당하며, 유망기업 발굴과 검증에 미래에셋과 네이버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참여한다.

미래에셋-네이버 아시아그로스펀드는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등의 성장성이 높은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

폼, 헬스케어, 소비자, 유통, 물류 등 기술의 발전과 소득증가로부터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금융과 IT회사가 공동 투자하는 특성을 살려 재무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과 현지 기업, 시장과의 가교 역할을 진행하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지광 미래에셋캐피탈 신성장투자본부장은 "이번 투자는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승차공유와 O2O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투자"라며 "향후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다양한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